

■ 광주 서구아너스 출범 1년

민관협력 복지 브랜드 자리매김...착한도시 서구 완성

회원 103명·후원금 35억...생활형 나눔문화 등 복지사각 메워
기업·의료인·자영업자 등 '마음부자' 동참...세대·분야 확산

광주 서구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 아너스'가 출범 1년 만에 '착한도시 서구'를 대표하는 민관협력 복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13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결성된 고액후원자 그룹인 서구아너스는 1년 만에 회원 103명, 누적 후원금 35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기업인, 의료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마음부자'들이 동참하며 지역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다.

현재까지 1억원 이상 후원자 4명, 5000만원 이상 9명, 3000만원 이상 90명이 '디지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서구아너스는 단순한 고액 기부 모임이 아닌 민관협력형 복지 네트워크로, 매월 주제별 나눔사업을 통해 공공 지원

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엄마나라 보내주기' 프로젝트, 가족돌봄청년 장학금 지원, 경북 산불피해 주민 돕기, 장애인 부부 결혼식 후원, 폐지 수거 어르신 센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청소년과 함께 '독도 원정대'를 꾸려 교과서 밖 역사여행을 추진했으며, 이달에는 학교 밖 청소년 24명을 대상으로 '꿈 발견 수학여행'을 지원한다.

서구아너스의 나눔은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 복지의 12달을 채우는 생활형 나눔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서구는 서구아너스의 활동을 기반으로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위기 가구 등 4대 분과 체계를 새롭게 구성, 회원들이 관심 분야별로 직접 사업을 기획·추진할



광주 서구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가 출범 1년 만에 '착한도시 서구'를 대표하는 민관협력 복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서구아너스는 1년만에 회원 103명, 누적 후원금 35억원을 달성했다.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1년 전의 작은 걸음이 100명의 큰 걸음으로 이어져 따뜻한 길을 만들었다"며 "나눔이 일상이 되

는 '착한도시 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12일 웨딩그룹위더스 광주에서 서구아너스 출범 1주년 기념

식을 열고 회원과 가족,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의 여정을 함께 축하했다.

서구 아너스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더하는 회원 배가운동(MGM 데이)'을 선언하며, 선한 영향력의 확산과 지역 복지 틈새 해소에 나섰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임민자 넷온 회장 '올해의 아너 소사이어티 대상' 수상

5년간 1억 기부...광주 첫 모자 아너로 꾸준한 나눔 실천

임민자 (넷온) 회장은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70호 회원)이 13일 서울 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에서 열린 '2025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에서 '올해의 아너 대상'을 수상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17년 아너 소사이어티 광주 70호 (전국 1749호)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5년간 1억원의 성금을 꾸준히 기부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아들 김양선씨가 광주 173호 아너로 함께 가입하면서 광주 최초의 '모자(母子) 아너'로 이름을 올렸다.

세대 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 내 기부문화 확산과 아너 활동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은 "기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제 삶에도 큰 기쁨과 원동력을

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 (Honor Society)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설립한 대한민국 대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가입 조건은 1회 1억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 내 1억원 이상을 약정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이동훈 전남대병원 교수 '소생의학상' 수상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응급의학 발전 공로

전남대학교병원원은 최근 이동훈 응급의학과 교수(사진)가 스웨그르덴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5년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소생의학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생의학상은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가 매년 소생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고 임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교수는 다년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뇌 손상 최소화를 위한 연구에 매진해왔다.

특히 심정지 후 통합 치료(Post-cardiac arrest care) 분야에서 다수의 우수 논문을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게재하며



소생의학 발전을 이끌어 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응급환자, 특히 심정지 환자의 초기 대응 및 치료 프로토콜을 개선하고 후배 양성에도 힘써 임상 현장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이동훈 교수는 "이 상은 함께 땀 흘린 응급의학과 동료들과 연구팀을 대표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연구와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신규 인증

기업·시민 참여형 지향...후원 생태계 매개기관 평가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신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문화예술보

야 후원 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기관을 인증함으로써, 민간 후원 활성화와 공공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신규인증 12곳, 재인증 11곳이 추가되어 총 80개 단체·기관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기반의 메세나 사업 추진 체계와 기업·시민 참여형 후원 모델을 지속 운영해 온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인증을 통해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인증마크 활용, 홍보 및 후원매개사업비 보조금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인증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후원 참여 확산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은 최근 2025년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비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 김장나눔 사업비 전달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은 최근 2025년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비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옥룡면과 진월면, 골약동, 금호동 등 4개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됐다.

김장나눔 사업비 지원은 복지재단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공동체 복지진전을 위해 마련됐다.

김재경 복지재단 이사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김장나눔사업을 하게 됐다"며 "이번 김장나눔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나눔과 돌봄의 문화를 확산하여 따뜻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한중 실�크로드 협회는 최근 해남군립도서관 문화강좌 중국어반팀과 함께 중국 소관시 응원현을 찾아 산업 현황을 살펴보는 등 현장활동을 전개했다.

한중 실�크로드 협회, 해남군민과 중국 현장활동

소관시 응원현 방문...난초 산업 현황 살펴

한중 실�크로드 협회는 최근 해남군립도서관 문화강좌 중국어반팀과 함께 중국 소관시 응원현을 찾아 산업 현황을 살펴보는 등 현장활동을 전개했다.

협회는 응원현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김한 난초산업단지를 방문해 전미 화훼가지와 만에 전자상거래 서비스 센터를 둘러봤다.

응원현의 지역 특화상품인 난초는 배양부터 완성된 상품까지 현대화 재배 기술이 집적, 다양한 종류의 난초 브랜드화해 전자상거래로 판매되고 있다.

협회는 또 해남과 임진왜란으로 인연이 있는 진린 장군의 생가와 사당을 살펴보고 당시 명마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담양 수북면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수북면사무소에서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홀몸 어르신,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120가구를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담양 수북면 새마을부녀회, 밑반찬 나눔 봉사

취약계층 120가구에 전달

담양 수북면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수북면사무소에서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홀몸 어르신,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120가구를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서는 김철이, 깍두기, 장조림 등으로 구성된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수북면 내 취약계층 120가구에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중수 담양군 새마을지도자 회장, 김미례 새마을부녀회 회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정선미 수북면장은 "아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수북면이 더욱 온정 넘치는 마을이 됐다"고 전했다.

김영례 수북면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북면 새마을부녀회는 김영례 회장을 비롯한 29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밑반찬 나눔 외에도 김장 나눔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꾸준히 공헌하고 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